

# 전장연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 안해”

### 탑승 안 한 채 승강장 선전전...“손가락 아닌 달 바라봐달라” 뜻 지하철 시위 유보하고 서울시와 협상 계속...“내달 2일 실무 협의” “3월23일엔 1박2일 지하철 시위 예고...추경호·오세훈 태도 달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서울시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장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머물면서 ‘지하철 선전전’ 형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달보기 운동’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달보기 운동’의 의미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보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서울시와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하철 시위 재개 시점을 재차 늦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장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논의 등을 언급하며 “(이것이) 13일 지하철 승차를 마무르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중심으로 기다림을 결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달 2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실

무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 주제는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관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초청간담회 이행 ▲2024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등 4대 요구사항이다. 이밖에 오는 23일 전장연 총회, 매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 방문 시위 등도 예고했다. 전장연은 내달 23일 기한 도래 이후에는 “23일, 24일 1박2일 간 삼각지역에서 전국



집중 지하철 행동을 예정한다”며 “추 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 변화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포근한 날씨, 즐거운 오후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신호 바뀐 직후 횡단보도 뛰어든 아이 친 스쿨존 사고 벌금형

### “피해자 과실 있어도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책임 있어”...택시기사에 벌금 250만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 횡단보도로 뛰어든 아이를 차로 치어 부상을 입힌 스쿨존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인 택시기사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10대 소년을 택시로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에 맞춰 차를 출발시킨 만큼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비록 신호를 무시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A씨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며 “성인보다 지각능력과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로 택시 주변이나 도로 주변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과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 영광군 통과하는 고압송전탑, 주민들 반발

### 345kV 송전탑, 5개지역 통과계획

영광지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등 광역권 전력 공급을 위해 신안군 일자도

에서 장성군 동화면 변전소까지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송전선로는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등 5개 지역을 관통하게 될 예정이다”며 “영광군민에게 갈 큰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통과한다는 사실을 영광군 주민들이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영광의 대표 관광지인 불갑산과 강향선생 유적지 등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되었다”며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영광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지원금 몇 푼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노선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다”며 “경과지 선정에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